

42세 최형우, 최고령 타격왕 '짹'

삼성 김성윤 이어 현재 타격 2위
12경기 연속 안타 물오른 방망이
5월 타율만 0.412... 거센 상승세
역대 최고령, 이병규 LG2군 감독
기록 깨려면 여름 체력 관리 관건

전반적인 투고타저 현상이 두드러진 2025시즌 프로야구 타격 부문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 탄생할 조짐이 보인다.



먼저 KIA 타이거즈 최형우는 역대 최고령 타격왕에 도전한다.

1983년 12월생인 최형우는 41세 5개월의 나이에 이번 시즌 타율 0.335를 치며 타격 2위에 올라 있다.

1위는 삼성 라이온즈 김성윤의 0.339다. 역대 KBO리그 최고령 타격왕 기록은 2013년 이병규 현 LG 트윈스 2군 감독이 세운 38세 11개월이다.

최형우는 13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부터 25일 삼성전까지 최근 12경기 연속 안타를 때릴 정도로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월 타율만 따지면 0.412에 이를 정도로 최근 상승세가 돋보인다.

올해 타격 부문에서는 최형우 외에도 양의지(37·두산 베어스)가 타율 0.326으로 3위, 손아섭(37·NC 다이노스)이 0.322로 4위에 오르는 등 베테랑 선수들이 상위권에 포진한 점도 특이하다.

'40대 타격왕'을 향해 지난 2022년 롯데 소속이던 이대호가 시즌 막판까지 선두 경쟁을 벌인 적이 있으나 0.331을 기록하며 4위로 시즌을 마쳤다.

삼성의 외국인 타자 르윈 디아즈는 25일 KIA와 경기에서 홈런 2개를 몰아치며 시즌 첫 20홈런 고지에 올랐다.

미국과 일본, 대만 프로야구에서 아직 시즌 20홈런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팬들은 디아즈를 가리켜 '세계 홈런왕'이라는 별명을 붙였을 정도다.



KIA 최형우가 1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 2회 말 선두 타자로 나와 안타를 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시즌 초반에는 낮은 타율에 홈런, 타점에도 '영양가가 별로 없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25일 KIA전에서는 역전 홈런, 끝내기 홈런을 차례로 때려 내며 2만 4000명 홈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지금은 타율도 0.308로 올랐고, 홈런 외에 타점도 58타점으로 압도적인 1위다. 타

점 2위는 42타점의 빅터 레이에스(롯데)다. 팀의 53경기에서 20홈런을 친 디아즈가 이런 추세로 홈런을 때린다면 54개 홈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KBO리그에서 시즌 50홈런 이상은 10년 전인 2015년 박병호(당시 넥센)의 53개가 마지막이다.

최형우로서는 역시 노장인 만큼 여름철 체력 관리가 관건이고, 2024시즌 도중 삼성 유니폼을 입은 디아즈는 상대 팀들의 견제 등의 숙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각각 대기록 달성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이번 챕터는 끝났다” 호날두 또 이적하나

사우디 리그 끝나자 SNS에 글 올려... 팀과 계약 종료 임박

사우디 프로축구 알나스르에서 뛰어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0·포르투갈)가 시즌 종료와 함께 이적을 예고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호날두는 27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챕터(장)는 끝났다. 이야기? 아직 쓰이고 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알나스르 유니폼을 입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게재했다.

호날두의 글은 알나스르가 알파테와 원정 경기로 치른 사우디

프로리그 최종전이 끝난 뒤 게시됐다.

호날두는 이날 폴타임을 뛰며 전반 42분 선제골을 넣기도 했으나 알나스르는 2-3으로 역전패했다.

호날두는 2022년 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 결별하고 알나스르로 향해 전 세계 축구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알나스르에서 2년 반을 뒀던 호날두의 계약 기간은 올해를 끝낸다.

호날두는 알나스르에서 2023·2024시즌 35골을 터뜨려 사우디 리그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갈아치우고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적 후 중동, 아프리카팀들이 참가하는 아랍클럽챔피언스컵

에서 정상에 섰을 뿐 리그 등 다른 대회에서는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알나스르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도 18개 팀 중 3위에 머물렀다. 알나스르

와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호날두의 이적설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호날두가 클럽 월드컵에 출전할 수도 있다. 몇몇 클럽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멀티골’ 울산 에릭, K리그1 15라운드 ★

멀티골 활약으로 울산 HD의 5경기 연속 무패(3승 2무) 행진에 힘을 보탠 에릭(28·브라질)이 프로축구 K리그1 15라운드를 가장 빛낸 별로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7일 에릭이 하나은행 K리그1 2025 15라운드 최우수 선수(MVP)에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에릭은 지난 24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린 김천 상무와의 홈 경기에서 0-2로 끌려가던 후반 27분 페널티킥으로 추격골을 터뜨리더니 후반 42분 엄원상의 크로스를 헤더 동점골로 넣어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에릭의 멀티골에 이어 울산은 후반 44분 엄원상의 역전 결승골을 앞세워 3-2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울산은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승점 28로 3위에 랭크, 선두 대전하나시티

즌(승점 31)과 2위 전북 현대(승점 29)를 추격했다.

울산과 김천의 경기는 K리그1 15라운드 베스트 매치에 선정됐고, 대역전극을 펼친 울산은 베스트팀에 뽑혔다.

K리그1 15라운드 베스트 11에는 주민규(대전), 에릭(울산), 엄원상(울산·이상 공격수), 최건주(대전), 김동현(강원), 이순민(대전), 어정원(포항·이상 미드필더), 이태석(포항), 전민광(포항), 하창래(대전·이상 수비수), 김동준(제주·골키퍼)이 이름을 올렸다.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첨가
*브로멜라인 *레시틴 풍부
관절 영양제
Net Wt. 3.02oz(85.6g) (내지)

인한서 플러스
A Supplement to Help Maintain the Healthy Joints of High Activity and Older Dogs
• Glucosamine • Chondroitin from Shark • Rich in Lecithin
Formulated to Keep a Dog at the Head of the Pack!
Net Wt 12 oz. (340 g)